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구·경북지회의 발전을 꿈꾸며



정종학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기에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할일이 더욱 많아 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협회를 열심히 가꾸어 온 것처럼 우리도 국가와 시대가 요구하는 명제를 잘 파악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회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와의 소중한 인연

필자의 협회와의 인연은 1972년 시카고 대학과 한국가족계획연구원에서 주최한 “가족계획연구와 평가워크숍”에서 부터였다. 당시 합계출산율이 약 4.5명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한 시기였다.

이후 예방의학을 전공한 관계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관여를 하다가 1991년부터 대한가족계획협회 대구·경북지회의 운영위원을 역임하였고 이후 안중호 현 부회장의 후임으로 대구·경북지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현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특수건강진단협의회 전문위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이사, 대구지역 보건방역협의회 위원, 대한산업의학회 고시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조금

이나마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의 감소, 수명의 연장 등으로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인구(47,008천명)의 7.2%(3,395천명)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다.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여성 한 명당 평균출산율)이 1970년의 4.5명에서 2002년에는 1.17명으로 감소하였다.

평균수명 또한 남자는 72.8세, 여자는 80.0세로 남자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74.4세)보다 1.6년 낮지만 여자는 OECD 평균(80.4세)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정부나 우리 협회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회구조가 변경되었고 국

민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 부처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부나 우리 협회에서 저출산에 대응해서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거의 재미있는 가족계획 포어가 “뒤편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하다”였는데 지금의 도심 전광판에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홍보가 나가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 촉진, 안정적 연금, 재정정책의 운용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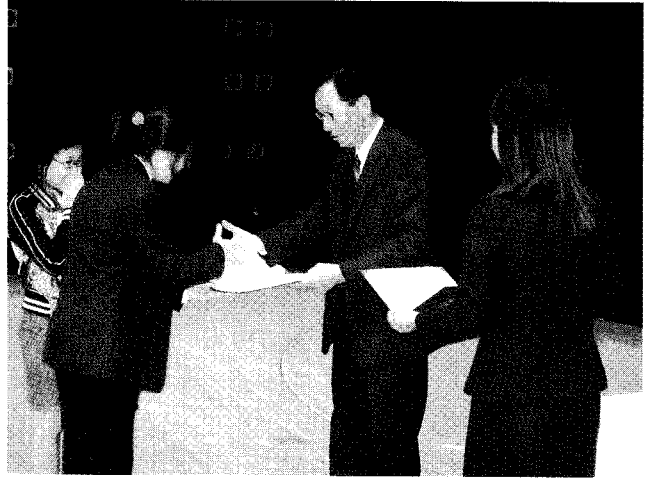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체출산율(2.1) 수준 유지, 모집, 채용, 해고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연금의 장기안정 재정보호, 노인요양제도 확충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믿음과 신뢰로 사랑받는 대구·경북지회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기에서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할일이 더욱 많아 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협회를 열심히 가꾸어 온 것처럼 우리도 국가와 시대가 요구하는 명제를 잘 파악해서 적응하고, 소화해서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회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원론적이지만 협회 내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경북지회 전 직원은 한 가족과 같은 믿음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04년 '건전한 성 가꾸기 연극제' 시상식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뢰가 가장 먼저일 것이다.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항상 연구하고 변화하면서 각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겠다. 연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또한,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직원 각자가 능력을 개발하고 환자중심의 병원경영, 국가시책과 관련된 사업 방향 구축, 수탁사업의 확대, 신규사업의 개발로 기존사업과 동반상승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또한, 지회 외부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내부 환경도 잘 가꾸어서 명분있고 투명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愛衆以謙和爲首’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화목을 으뜸으로 삼는다는 뜻이다.